

삼남석유화학, “여수시민께 사죄?”

환경연합, 안전 위협한 불법 규탄 ... LG화학과 양해각서 눈가림

삼남석유화학이 TPA 공장 유류 유출사고와 고압가스 완성검사 부적합에 따른 시운전 문제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삼남석유화학은 6월24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여수시민에 대해 사과문과 함께 약약서를 제출했다.

삼남석유화학 김상규 부사장은 “여수시민과 환경단체 등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어린이 환경도서관 건립기금 7억원을 여수시에 기탁하고 신규직원 채용이나 보수, 자체구매도 지역기업에 상당 부분 할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삼남석유화학은 2003년 2월19일 안전 소홀로 여수공장 유류 저장탱크에서 병커C유 약 1000리터를 인근 광양만으로 유출해 해양경찰청이 긴급 방제를 벌였다.

이어 TPA 40만톤을 증설하고 준공허가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았으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삼남석유화학 TPA 제4공장의 경계가 이웃하는 다른 공장과 20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했으나 18미터 정도에 그치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삼남석유화학은 4월14일 불법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상업생산에 들어가 관련 법 규정 위반은 물론 인근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까지도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여수환경연합은 5월20일 성명서를 통해 “다량의 병커C유를 유출해 광양만을 오염시킨 바 있는 삼남석유화학이 또 다시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안전거리마저도 확보하지 않은 채 공장을 증설하고 검사기관의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공장을 가동해 여수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삼남석유화학 규탄집회를 시작했다. 또 삼양사 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삼남석유화학 관계기관의 시정을 요구해 왔다.

결국 삼남석유화학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특례조항을 들어 삼남석유화학의 실제 고압가스 시설과 LG화학 시설 사이의 50여m 공간에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고압가스시설 보장 확인서>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환경연합 및 시민단체는 위법 판정 문제를 해결키 위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뿐 여전히 안전상의 위험은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여수환경연합 강홍순 사무국장은 “삼남석유화학의 사과와 약속 이행 여부는 지켜보겠지만,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법적·행정적인 판단은 공정히 내려져야 할 것이고, 공장 준공허가 관계 당국인 여수시가 불법가동을 묵인한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 여부를 분명히 가려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여러 가지 환경오염, 안전사고를 경험하고도 편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삼남석유화학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기업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남석유화학은 삼양사, LG-Caltex 정유, 일본 Mitsubishi Chemical이 40대40대20 합작으로 1988년 설립됐다. <조인경 기자>

삼남석유화학의 사과 기자회견



사진) 여수환경연합 제공

<Chemical Journal 2003/06/30>